



제언

국력 강화는 산업장 건강증진 향상으로



이정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

산업보건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중 경제활동 인구수는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의 수입에 의존하는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산업보건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 사업내용은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건강문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산업장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하는 건강문제가 ‘우울’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유병률 중 ‘우울’ 문제가 높으며, 또한 ‘우울’ 문제의 관리비로 지불하는 의료보험료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하는 문제가 ‘우울’이라는 보고가 있다. 일본인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본 노인들의 건강관리 중 중요한 전략이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서 우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함께 모여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할 건강관리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망원인을 비교해 보면 1999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이 선진국들과 같이 1위 심혈관질환, 2위 암, 3위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가 심혈관질환으로 바뀌었다. 1위 사망원인인 암 중에서도 위암이 1위 사망원인이었는데 폐암이 암으로 인한 사망 중 가장 높은 원인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듯이 세계적으로 높은 흡연율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2000년도 발간한 ‘흡연과 건강’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1년간 3조 9,591억원이라고 한다. 산업장 근로

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흡연대상자의 대부분이 성인인 것을 고려한다면 산업보건에서 가장 강조할 건강관리는 금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 박사가 개발한 ‘5&6’ 금연프로그램(5주간 6회를, 1회에 1시간 30분 동안 운영하는 그룹금연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임이 알려지면서 여러 산업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가장 최근에 적용한 현대그룹의 한 산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흡연자 중 95%가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이 법에 의하여 1997년 담배 한갑 당 2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가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한갑 당 500원의 기금을 부가하였고 2005년도에도 더 증가할 계획으로 있다. 이 기금으로부터 2005년도에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금연상담가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산업장의 산업보건관리는 보건관리자 혹은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대행업체의 보건관리제공자가 금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보건관리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에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금연관리를 강화하여 준비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 금연관리를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 건강자원인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연관리 사업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산업장이 보건소에 금연관리 사업을 의뢰한다면 상부상조하는 기회가 된다.

산업장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산업장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강 문제는 근로자의 흡연율 감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지역의 보건소를 최대로 연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